

‘從甬聲’ 語源意 文字 探索

秦 光 豪*

<目次>

I. 序言	2. 從童聲
II. 從甬聲의 形聲字	3. 從龍聲
III. 從甬聲 聲符 替換字	4. 從中聲
1. 從同聲	IV. 結言

I. 序言

《설문해자》 巳(함)部에 “甬, 艸木華甬甬然也. 從巳, 用聲”이라 풀이하였다. 이에 의하면 ‘초목에서 꽃봉오리가 확 피어난다’는 뜻이다. 그러나 金文에 보이는 甬자는 초목의 꽃봉오리와는 무관하게 甬, 甬으로 鐘의 형상이라 한다. 《설문》은 金문의 자형을 보지 못하여 소전의 자형만을 근거로 풀이한 결과 釋形의 誤를 범하였다.

《周禮·考工記·鳧氏》에 “鳧氏爲鐘, 舞上謂之甬, 甬上謂之衡”(부씨가 종을 만드는데 舞 위를 甬이라 하고, 甬 위를 衡이라 한다)고 하였으며, 注에도 “此二名者鐘柄”(이 두 명칭은 종의 자루이다)이라 하여 甬을 종의 일부로 보았다.

許進雄은 用은 甬의 초형이며, 대나무를 잘라 타격하여 소리를 낸다. 본래는 손에 들던 것이었으나(用) 후에 고리를 달아 메달 수 있게 하여 金문

* 부산외국어대학교 영일중대학 중국어학부 교수

의 甬이 되었다”¹⁾고 하였다.

이를 통해 甬은 종의 상형문자임을 알 수 있다. ‘용(yong)’이란 독음도 종의 울림소리를 모방한 擬聲詞가 아닌가 한다.

종은 타격을 가하면 그 소리가 發出되어 멀리 퍼져나가므로 《설문》은 涌의 의미로 풀이하었다. 甬자의 段玉裁 注에도 “凡從甬聲之字皆興起之意”(모든 甬聲의 문자는 다 흥기하다는 의미를 갖는다)라 하였다. 徐鍇의 《說文繫傳》에도 “甬之言涌也, 若水涌出也”(甬은 涌을 말한다. 물처럼 용출한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甬은 원통형 종으로 타격을 통해 종소리가 발생되어 나간다는 것에서 인신되어 ‘흥기하다’는 의미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자 甬은 주로 인신의로만 쓰이고 본의인 종은 金을 형부로 갖는 “從金,甬聲”의 形聲專字인 鍾자를 만들게 되었으며, 지금 쓰는 鐘자의 성부 童은 甬에서 淸환된 것이다. 《설문》은 金部에서 鐘과 鍾을 이체자로 보았다.

또한 從甬聲의 문자를 찾아보면, 이러한 의미 외에도 ‘비다(空)’, ‘없다(無)’, ‘통하다’, ‘타격하다’ 등과 관련된 의미를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타격을 가해 종의 빈속이 공명을 일으키도록 만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위의 鐘자와 鍾자에서 甬과 童이 淸환된 것처럼 유사한 음을 성부로 가진 형성문자들도 이러한 甬의 의미를 나타내는 예를 찾을 수가 있다. 이들 역시 성부가 甬자에서 淸환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본 논문은 이점에서 착안하여 從甬聲의 문자를 찾아 성부 甬이 형성자에서 어떠한 자의를 나타내고 있으며, 甬과 유사한 음을 성부로 가진 형성문자 중에서 甬을 語源意로 갖는 문자를 《설문》과 經典에서 찾아 從甬聲과의 성부替換²⁾ 관계와 그 어원의를 밝혀보고자 한다.

1) 許進雄 著, 《중국고대사회》, 臺灣: 商務印書館, 336쪽 참조.

2) 성부替換은 拙稿 <형성자 성부의 替換 現象>, 영남중국어문학 제49집(2007.6), 375-398쪽 참조.

II. 從雨聲의 形聲字

《설문》에는 從雨聲의 형성자가 모두 11자가 보인다. 이들을 《설문》의 해석을 근거로 의미 별로 보면 아래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설문》 金部에 “鐘, 樂鐘也. 秋分之音萬物種成, 故謂之鐘. 鍾, 鐘或從雨”

《설문》 辵部에 “通, 達也. 從辵, 雨聲”

《설문》 竹部에 “箛, 斷竹也. 從竹, 雨聲”

《설문》 木部에 “桶, 木方受六升. 從木, 雨聲”

《설문》 虫部에 “蛹, 繭蟲也. 從虫, 雨聲”

《설문》 足部에 “踊, 跳也. 從足, 雨聲”

《설문》 言部에 “誦, 諷也. 從言, 雨聲”

《설문》 水部에 “涌, 勝也. 從水, 雨聲”

《설문》 力部에 “勇, 氣也. 從力, 雨聲”

《설문》 人部에 “俑, 痛也. 從人, 雨聲”

《설문》 疒部에 “痛, 病也. 從疒, 雨聲”

(1) 종

金部の 鍾은 원래 雨의 形聲專字이다. 雨字가 종 이외의 의미로 사용되자 형부 金을 가해 “從金, 雨聲”의 형성자 鍾을 만든 것이며, 후에 성부 雨이 음운관계가 밀접한 성부 童으로 가차되어 지금에 자주 쓰이는 鐘자가 되었다.

(2) 통하다, 비다, 공간

辵部の 通은 ‘통하다’는 뜻으로 본의는 길이 장애가 없이 비어서 막히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通은 空과 의미가 통한다.

竹部の 箆은 대나무를 쪼개어 만든 대나무 통을 말한다. 이 역시 속이 비어 있는 것이므로 空과 의미가 통한다.

木部の 桶 역시 나무로 만든 목통을 뜻하므로 空의 의미이다. 《설문》은 여섯 되를 담을 수 있는 나무통이라 하였다.

虫部の 蛹은 ‘번데기’를 뜻한다. 번데기는 고치 속의 빈 공간에서 자라 성충이 되는 벌레이므로 空과 의미가 통한다. 따라서 通과 箆, 桶, 蛹의 네 문자에서 성부 甬은 모두 ‘통하다’, ‘공간’의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발출하다, 흥기하다

足部の 踊은 ‘도약하다’는 의미이다. 이는 종을 타격하여 종소리가 ‘멀리 울려 퍼지다’는 의미에서 파생되어 ‘발출하다’, ‘흥기하다’는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言部の 誦은 ‘낭송하다’는 의미이므로 이 역시 종소리의 울려 퍼짐과 의미를 같이 하고 있다.

水部の 涌은 물이 용솨음침을 말하는 것이므로 ‘발출하다’는 뜻을 갖고 있다.

力部の 勇은 ‘기운이 솨아 넘치는 것’을 뜻하므로 앞의 涌과 같이 ‘발출하다’는 뜻을 갖고 있다. 따라서 踊과 誦, 涌(湧), 勇의 네 문자는 성부 甬이 모두 ‘발출하다’, ‘흥기하다’는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4) 타격하다

人部の 痛과 疒部の 痛은 모두 질병이나 고통을 의미한다. 통증이란 내외의 충격과 타격에 의한 것이므로 이 또한 甬의 ‘타격하다’는 의미에서 취한 것이라 볼 수 있다³⁾.

이로 볼 때 甬은 종이 본의이지만 종의 기능과 특성에 의해 ‘비다’, ‘통

3) 甬은 지금은 ‘허수아비’, ‘人形’을 뜻하는데 이는 偶(우, 옹)자에서 가차된 의미이다.

하다’, ‘발출하다’, ‘흥기하다’, ‘타격하다’는 다양한 의미로 형성자의 성부에서 표의기능을 하고 있다.

III. 從雨聲 聲符 替換字

從雨聲의 형성자만이 종과 연관성 있는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雨과 음운관계가 있는 문자 중에도 雨과 관련이 있는 뜻을 가진 문자를 찾아볼 수가 있다. 本稿에서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이는 從同聲, 從童聲, 從龍聲, 從中聲의 형성자를 대상으로 雨의 성부제한과 그 어원의를 찾아보았다.

1. 從同聲

《설문》 冂部에 “同, 合會也. 從冂口”라 하였다. 이에 의하면 同자는 ‘합하고 모이다’는 뜻이며, 이에서 ‘같다’, ‘모두’, ‘함께’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보았다. 갑골문과 금문의 자형도 소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從同聲의 문자 중에는 위의 뜻과 무관하게 1) 통하다, 비다(공간). 2) 타격하다와 같이 雨과 유사한 의미로 쓰이는 문자들이 있다. 이들을 《설문》과 字書와 韻書 등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1) 비다, 통하다 (空, 通)

《설문》 辵部에 “迥, 迥迭也. 從辵, 同聲”

《설문》 行部에 “衢, 通街也. 從行, 同聲”

《설문》 竹部에 “筒, 通簫也. 從竹, 同聲”

《설문》 水部에 “洞, 疾流也. 從水, 同聲”

《설문》 馬部에 “駟, 馳馬洞去也. 從馬, 同聲”

《集韻·東韻》에 “峒, 一曰山穴, 通作洞”

《集韻·東韻》에 “胴, 大腸”

《玉篇·穴部》에 “窩, 通窩”, 《集韻·董韻》에 “窩, 通穴也”
 《玉篇·土部》에 “坳, 缶坳也”
 《集韻·東韻》에 “網, 緩而直通兒”

(2) 타격하다

《설문》 心部에 “恫, 痛也. 從心, 同聲”
 《集韻·東韻》에 “舟同(艘), 或作艘”, 《廣韻·東韻》에 “艘, 艘艘, 戰船也”. 《廣雅·釋水》의 <疏證>에 “玉篇, 艘艘, 戰船也. 字本作蒙衝”

《설문》 辵部 “迺, 迭也”의 해석에 대해 단옥재는 注에서 “迭은 마땅히 達이라 해야 한다. 《玉篇》에 迺은 通達也라 하였는데 옳다. 水部に 洞은 疾流也라 하였고, 馬部に 駟은 馳馬洞去也라 하였는데 의미가 모두 같다.”⁴⁾고 하였다.

迺은 “達”이며, 이는 ‘통달하다’는 뜻이다.

行部の 衢도 通過 같은 의미로 풀이해 모두 ‘길이 통하다’라 풀이하고 있다.

竹部の 筒은 대나무의 빈 공간을 이용해 만든 관악기인 통소(洞簫)를 나타낸다. 역시 ‘비다’와 의미상 연관성이 있다.

洞은 《설문》의 해석에는 ‘물의 흐름이 막힘없이 빨리 흐르는 것’이라 하였다. 《集韻·動韻》에 “一曰通也”라 하였다. 지금은 孔穴을 洞이라 한다.

駟 역시 말이 막힘없이 치달림을 말한다. 막힘이 없다는 것은 잘 소통된다는 뜻이다.

山部の 峒은 산의 굴을 나타낸다.

肉部の 胴은 대장을 뜻한다. 대장은 관처럼 속이 비고 길게 생겼으므로 의미의 연관이 있다.

穴部の 窩는 ‘통하는 굴’이라 하여 ‘통하다’, ‘굴’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4) “迭, 當作達. 玉篇雲, 迺, 通達也. 是也. 水部洞, 疾流也, 馬部駟, 馳馬洞去也. 意皆相同”

《玉篇·土部》에 洞은 ‘항아리’나 ‘단지’를 뜻하는 문자이다. 이 역시 桶과 같이 공간에 물건을 담는 것이므로 ‘비다’, ‘통하다’는 뜻을 갖는다.

糸部の 綱은 “直通兒”라 하여 역시 ‘통하다’라 풀이하였다.

이로부터 위의 從同聲의 문자는 모두 ‘통하다’나 ‘비다’, ‘공간’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心部の 惘은 ‘마음이 아프다’는 뜻이다. 통증이란 위의 痛과 痛의 경우처럼 내외의 심신의 충격에 의한 것이므로 역시 ‘타격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艸部의 童이라고도 쓰는 (舟同)⁵⁾자는 賊船을 들이받아 싸움을 벌이는 전투용 배를 의미한다. 이의 성부 同과 童은 모두 ‘타격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상의 從同聲의 형성자에서 보듯이 모두 ‘통하다’, ‘비다’, ‘타격하다’는 뜻을 갖고 있다. 이는 同의 《설문》 해석인 “合會”의 의미와는 무관한 것이다. 이들은 바로 원통형 종을 나타내는 甬자에서 그 의미가 근원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성부 同은 甬에서 성부가 체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甬은 余隴切로 古聲 喻紐이며 古韻은 10부⁶⁾이다. 同은 徒紅切로 古聲 定紐이며, 古韻은 9부이다. 喻紐와 定紐는 相異하나 古韻은 10부와 9부로 近似하다. 甬과 鐘의 성부 체환에서 보듯이 從雨聲과 從同聲도 체환이 가능하다.

2. 從童聲

《설문》 辛部에 “童, 男有鼻曰奴, 奴曰童, 女曰妾. 從辛, 重省聲”이라 하였다. 이에 의하면 죄를 지은 남자를 노예로 삼는데 이를 童이라 하며, 여

5) ()안의 문자는 컴퓨터에 수록된 문자가 없어 횡으로 나열해 쓴 것이다.

6) 古聲은 黃季剛 19紐와 《廣韻》 41聲類를 참고하였고, 古韻은 단옥제의 17운부를 참고하였다.

자인 경우는 耑이라 한다고 하였다. 금문에 보이는 耑자 역시 從辛으로 죄나 형벌을 나타내는 문자이다. 성부가 從東聲으로 《설문》과 다르다. 童은 남자노예를 뜻한다. 지금 쓰는 ‘어린아이’의 뜻은 僮자에서 온 의미이다. 따라서 아동이란 단어는 兒童이 아니라 兒僮이라 쓰는 것이 정확하다. 그러나 從童聲의 문자 중에는 이와 무관하게 1) 타격하다, 부딪치다. 2) 통하다. 3) 흥기하다. 4) 없다(無)와 같이 雨에서 유래한 의미로 쓰이는 문자들이 있다. 이들을 《설문》과 韻書에서 찾아보면,

(1) 종

《설문》 金部에 “鐘, 樂鐘也. 秋分之音萬物種成, 故謂之鐘. 從金, 童聲. 鐘或從雨”

(2) 타격하다, 부딪치다

《廣韻·東韻》에 “鐘, 鑿鐘, 戰船也”. 《廣雅疏證》에 “玉篇鑿鐘, 戰船也. 本作蒙衝”

《설문》 手部에 “撞, 𠬞擣也. 從手, 童聲”

《설문》 心部에 “撞, 意不定也. 從心, 童聲”

(3) 통하다

《설문》 行部에 “衝, 通道也. 從行, 童聲”

(4) 흥기하다

《설문》 疒部에 “(疒童), 脛氣腫. 從疒, 童聲. (无童), 籀文”

(5) 없다(無)

《설문新附》 牛部에 “犗, 無角牛. 從牛, 童聲”

《廣韻·東韻》에 “羊同(羊童), 無角羊”

《설문》의 해석에 의하면 鐘은 악기의 종을 말한다. 혹제자로 鐘은 鍾이라도 쓴다고 하였으나, 앞에 설명한 字源을 근거로 하면 雨이 종의 상

형문자이며, 이에 재료를 나타내는 형부 金자를 가해 형성자 鍾자를 만들었다. 후에 성부 甬이 다시 童으로 성부가 체환되어 지금의 鐘자가 된 것이다. 따라서 甬에서 鍾으로 다시 鐘으로 변한 것이다. 《설문》에서 鐘을 本字로 鍾을 或體로 본 것은 잘못이다.

앞의 從同聲에서 언급했듯이 《광운》에 “鐘, 鑿鐘, 戰船也”라 하였고, 《廣雅疏證》에도 “玉篇鑿鐘, 戰船也. 本作蒙衝”이라 하였다. 이에 의하면 鐘은 적의 배와 충돌해 공격하는 戰船의 일종이다. 성부인 童은 甬의 ‘타격하다’는 의미에서 온 것이다.

手部에 撞은 “𠬞擣也”라 하였다. 𠬞은 지금의 迅자로 ‘급히 부딪친다’, ‘들이박다’는 뜻이다. 따라서 성부 童이 ‘타격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心部の 撞은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흔들린다는 뜻이다. 이 역시 타격에 의해 울리고 흔들리는데서 유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로부터 鐘, 撞, 撞의 從童聲은 모두 ‘타격하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行부에 衝은 지금의 문자로는 ‘從行, 重聲’으로 쓰고 있으나 《설문》의 소전에서는 “從行, 童聲”이라 쓴다. “通道”라고 한 풀이는 앞의 同聲의 문자가 甬의 성부 체환이라고 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 문자는 通道라는 의미 외에 지금은 ‘충돌하다’는 의미로 자주 쓰인다.

疒部の (疒童)은 ‘정강이가 부어오르는 병’이다. ‘부어오르다’는 ‘흥기하다’와 의미가 통하므로 甬에서 온 의미이다. 이 문자는 腫, 腫, 腫이라고도 쓴다. 童과 重은 자주 통용되는 문자이다.

牛部の 犗은 《설문新附》에 “無角牛”이라 하여 ‘뿔 없는 소’라고 하였다. 《廣韻·東韻》에도 羊同(羊童)은 “無角羊”이라 하여 ‘뿔 없는 양’이라 하였다. 이 두 문자를 통해보면 從童聲은 모두 ‘없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없다’는 의미는 ‘空’에서 온 것이다.

따라서 위에 예시한 從童聲 문자에서 성부 童의 의미는 모두 중을 나타

내는 甬자에서 그 의미가 근원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성부 童은 甬에서 성부가 체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童 역시 同과 같이 徒紅切로 古聲 定紐, 古韻 9부로 聲母는 상이하나 古韻은 近似하다.

3. 從龍聲

《설문》 龍部에 “龍, 鱗蟲之長. 能幽能明, 能細能巨, 能短能長. 春分而登天, 秋分而潛淵. 從肉....., 童省聲”이라 하였다. 이에 의하면, 용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같은 전설상의 진능한 동물로 맘껏 변신과 조화가 가능한 대상으로 묘사하였다. 고대로 중국인은 용을 토렘으로 삼아 스스로를 ‘용의 후손’이라 하여 용을 매우 신령시하여 숭배하여 왔다. 그러나 從龍聲의 문자를 살펴보면 甬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문자를 찾을 수가 있다. 甬과 의미상 연관성이 있는 從龍聲의 형성자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1) 통하다, 비다

《설문》 竹部에 “籠, 舉土器. 從竹, 龍聲”

《설문》 衣部에 “籠, 綉綺也. 從衣, 龍聲”

《설문》 口部에 “嚨, 喉也. 從口, 龍聲”

《설문》 木部에 “櫳, 檻也. 從木, 龍聲”

《설문》 木部에 “巢, 房室之疏也. 從木, 龍聲”

(2) 興起하다, 솟아오르다

《설문》 土部에 “壟, 丘壟也. 從土, 龍聲”

《설문》 冫部에 “隴, 天水大阪也. 從冫, 龍聲”

이에서 보면, 竹部의 籠은 ‘대로 만든 바구니’를 뜻한다. 바구니는 빈 공간을 이용해 물건을 담거나 옮기는데 사용하는 것이므로 ‘비다’, ‘공간’의

뜻을 갖는다.

衣部の 襪은 ‘바지의 가랑이’를 뜻하는 문자이다. 바지의 가랑이는 통으로 되어 ‘바지통’이라고도 부를 수 있으므로 이 역시 ‘비다’, ‘공간’의 뜻이 있다.

口部の 囁은 ‘목구멍’을 뜻한다. 목구멍 역시 빈 공간이므로 같은 뜻을 갖는다.

木부에 櫛은 창살을 두른 ‘우리’를 뜻한다. 우리는 그 공간에 동물을 가두는 곳이므로 역시 공간의 의미를 갖는다.

역시 木部の 巢은 ‘방과 실이 통한다’라 하여 별개의 문자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廣雅·釋宮》에 “巢, 牢也”라 하였고, 《正字通》에도 “巢, 同櫛”이라 하였으며, 《玉篇·木部》에도 “巢, 亦作櫛”이라 하여 同字로 보고 있다. 두 문자는 모두 盧紅切로 동음의 문자이다. 아무튼 두 문자는 모두 ‘공간’이나 ‘통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

또 土部の 壟은 ‘언덕’이나 ‘무덤’을 나타내는 문자이다. 언덕이나 무덤은 봉분 모양으로 불룩하게 땅이 솟아오른 것이므로 ‘흥기하다’와 의미가 통한다.

阝(邑)部の 隴은 ‘높고 큰 언덕’을 의미한다. 언덕은 땅이 솟아오른 것이므로 ‘흥기하다’와 의미가 통한다.

따라서 위에 예시한 從龍聲 문자에서 성부 龍의 의미는 종을 나타내는 雨자에서 그 의미가 근원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성부 龍자 역시 雨字에서 성부가 체환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龍자는 力鍾切로 來紐 9部の 문자이다. 雨과 龍母는 상이하나 古韻은 9부로 近似하므로 체환이 가능하다.

이외에 從龍聲의 문자 중에는 ‘어둡다’, ‘어리석다’는 의미를 가진 문자들도 있는데, ‘어둡다’는 의미는 冡(蒙)자에서 온 것이고, ‘어리석다’는 의미는 童자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설문》 耳부에 “聾, 無聞也. 從耳, 龍聲”

《설문新附》 日부에 “曠, 曠曠也. 從日, 龍聲”

《설문新附》 月부에 “朧, 朦朧也. 從月, 龍聲”

이에서 耳부의 聾은 ‘귀머거리’를 뜻한다. 이는 귀가 막히거나 어두워 듣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日부의 曠과 月부의 朧은 햇빛이나 달빛이 아직 밝지 못해 어스름한 상태를 말한다.

《설문》 冡부에 “冡, 覆也”라 하였다. 冡은 從冡의 문자로 이는 덮어 씌어 가려서 어둡게 한 것이다. 이에서 ‘어둡다’는 의미를 갖는다. 冡은 莫紅切로 明紐 9부의 문자이다.

위의 《설문》의 해설처럼 從童聲, 從冡聲, 從龍聲은 유사한 음으로 疊韻 連綿詞가 되어 쓰인다.

《集韻·董韻》에 “儻, 未成器也”라 하였다. 이는 사람이 아직 그릇이 되지 못함을 말하는 것으로 앞의 從童의 僮과 유사한 의미이다. 《論語·泰伯》의 “侗而不願”에 대해 《集解》는“侗, 未成器之人也”라 하였다. 이로 보면 이 세 문자는 의미가 거의 유사하다. 성부 龍과 同은 모두 童에서 성부가 체환된 것이다.

4. 從中聲

從中聲의 문자에도 ‘비다’와 ‘흥기하다’는 의미를 갖는 형성자가 있다. 《설문》 丨부에 “中, 內也. 從口丨. 下上通也”라 하였다. 《설문》의 해석은 가운데를 관통한 모습이므로 ‘가운데’라는 의미를 갖게 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갑골문·금문에 보이는 中자는 대체로 𠄎, 𠄏, 𠄐의 형태이다. 위의 둘은 中자형의 깃대에서 깃발이 상하로 나부끼고 있는 모습이고 끝의 것은 깃발이 생략된 모습이다. 본의는 旗이다. 왜 ‘중간’, ‘가운데’의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 단정할 수는 없으나, 아마 기능상 한복판에 쏠는 것

이였기 때문에, 혹은 중간에 어떤 장식을 기점으로 상하로 깃발을 달았기 때문에 ‘가운데’라는 의미를 갖게 되지 않았나 여겨진다. 아무튼 ‘비다’, ‘흥기하다’와는 의미상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설문》 皿部에 “盅, 器虛也. 從皿, 中聲”

《설문》 水部에 “沖, 涌繇也. 從水, 中聲”

이에서 皿部의 盅은 ‘그릇이 빈 것’을 나타낸다. 이 ‘비다’는 뜻은 雨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水部의 沖은 물이 ‘용솟음치다’는 의미로 涌자와 의미가 비슷하다. 이 역시 從雨聲의 涌자처럼 雨에서 의미가 유래한 듯하다. 中은 陟弓切로 知紐 9부이다. 雨과는 韻이 近似하다.

IV. 結 言

漢字는 無形의 음성언어를 有形의 문자언어로 표기한 것이다. 따라서 그 음성언어에 물체가 발출하는 소리나 감지되고 연상되는 느낌이 전달되어 유형의 문자로 표현 될 수가 있을 것이다. 모든 문자의 讀音과 字意를 필연성을 갖고 연관시킬 수는 없지만, 독음과 자의를 전혀 별개의 것으로 나누어 볼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王力 같은 분은 독음과 자의의 同源 관계를 증명하려 하였고, 많은 학자들도 형성자 성부의 표의기능을 규명하려 “從某聲之字多有某意”의 說을 주장하였다. 또 그 규명의 한 방법으로 魯實先은 《假借遡原》을 저술하여 성부의 가차현상에 대해 깊은 연구를 하였다. 본 논문도 음이 같거나 유사한 문자 간에는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 의미상의 연관성을 갖는다는 믿음에서 출발하였다. 필자는 이 연구의 한 방법으로 일련의 논문을 통해 형성자 성부의 체환현상과 그를 통해 어원의를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從雨聲, 從同聲, 從童聲, 從龍聲, 從中聲의 형성자 중에 상당수가 서로 의미상 연관성을 갖고 있다. 그 의미의 중심에 雨자가 있다. 雨은 본래 가운데를 비게 만든 원통형 종의 상형문자이다. 이는 타격을 가하면 우렁찬 종소리가 은은하게 멀리까지 울려 퍼진다. 이에서 雨은 종이라는 본의 이외에 ‘비다’, ‘통하다’, ‘타격을 가하다’, ‘울려 퍼지다’, ‘우렁차다’, ‘흥기하다’는 등의 연상의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가 직간접으로 雨자 안에 녹아들어 雨과 유사한 음운관계에 있는 문자에 까지 영향을 미쳐 형성자의 성부로 체환되어 사용되었다.

본 논문의 조사에 의하면,

從雨聲의 문자는 1) 종. 2) 통하다, 비다, 공간. 3) 발출하다, 흥기하다.

4) 타격하다.

從同聲의 문자는 1) 통하다, 비다. 2) 타격하다.

從童聲의 문자는 1) 종. 2) 타격하다, 부딪치다. 3) 통하다. 4) 흥기하다.

5) 없다(비다).

從龍聲의 문자는 1) 통하다. 2) 흥기하다.

從中聲의 문자는 1) 비다. 2) 흥기하다.

는 상호 연관성 있는 공통의를 갖고 있었다.

통합적 의미향으로는 1) 종. 2) 통하다(비다, 공간, 없다). 3) 흥기(발출)하다. 4) 타격하단의 네 가지이다. 사용 빈도별로는 ‘통하다(비다)’는 뜻이 가장 많이 쓰였으며, ‘흥기(발출)하다’가 두 번째, ‘타격하다’가 그 다음이다. 종은 專用문자 鐘(鍾)으로만 쓰였다.

이들은 모두 同音이나 近似音 관계에 있는 문자들로 음운관계가 밀접하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위의 의미를 갖고 있는 문자들은 모두 雨을 어원자로 하여 성부가 가차되어 사용된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이들을 성부로 갖는 문자 중에는 본래의 字意로 사용된 것도 있고, 별개의 문자를 어원으로 갖는 것도(예로, 龔, 隴, 隴) 있으며, 성부의 표의기능이 잘 드러나지 않아 어원의를 밝힐 수 없는 것도 있다. 모든 형성자 성

부의 어원의를 다 밝힐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능한 예를 찾아 그 어원의를 찾아내는 작업은 향후 문자학 연구와 한자 교육에 있어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參考文獻>

- 許 慎, 段玉裁 注, 《說文解字注》 초판 臺灣: 漢京, 1980.3.
陳彭年 等, 《宋本廣韻》 4版 黎明文化事業公司, 1981.9.
丁福保, 《說文解字詁林》 臺灣: 鼎文書局, 1977.
《十三經注疏》 藝文印書館.
容 庚, 《金文編》 臺灣: 弘道文化事業有限公司, 1960.
李孝定, 《甲骨文字集釋》 초판 臺灣: 中央研究院 歷史言語研究所, 1965.
國立臺灣大學文學院古文字研究室編, 《中國文字》, 1962.
魯實先, 《假借遡原》 臺灣版.
林 尹, 《文字學概說》 正中書局, 1970.
唐 蘭, 《中國文字學》 초판 臺北: 洪氏出版社, 1980.1.
王 力, 《同源字典》 1판, 북경: 商務印書館, 1987.4.
淳于懷椿, 《漢字形體演變概論》 초판 沈陽, 1989.7.
高亨 編著, 《古字通假會典》 齊魯書社出版, 1989.7.
王鳳陽, 《漢字學》 초판 吉林文史哲出版社, 1989.12.
裘錫圭, 《文字學概要》 재판 北京: 商務印書館, 1990.4.
鄭權中 遺著, 《通借字萃編》 天津古籍出版社, 1990.10.
許進雄, 《中國古代社會》 2판 臺灣商務印書館, 1990.12.
詹鄞鑫, 《漢字說略》 초판 遼寧教育出版社, 1991.
李大遂 編著, 《簡明實用漢字學》 1版 北京大學出版社, 1993.10.
殷寄明, 《漢語語源義初探》 1版 學林出版社, 1998.1.
陳夢家, 《中國文字學》 中華書局, 2006.

진광호, <형성자 성부 替換 현상>, 《영남중국어문학》 49, 2007.6.

<中文提要>

《說文解字》巳部說“甬，艸木華甬甬然也。從巳，用聲”。但按照甲金文之字形，甬即圓筒形鐘之像形。《說文》僅根據小篆而解釋，就犯了釋形釋意之誤。甬之本意爲鐘。鐘本來是通過打擊，利用內部的中空之共鳴器官，遠遠地發出鐘聲的。從此甬字聯想爲‘中空’，‘相通’，‘打擊’，‘興起’，‘發出’等之含意。所以從甬聲之形聲字亦均有這類之意味。這樣的現狀不限於從甬得聲之字。與甬字有音韻關係密切的從同，從童，從龍，從中得聲之形聲字之中多數字包含着‘中空’，‘相通’，‘打擊’，‘興起’，‘發出’等之意。例如，

從甬得聲之形聲字 1) 鐘 2) 中空，相通 3) 發出，興起 4) 打擊

從同得聲之形聲字 1) 中空，相通 2) 打擊

從童得聲之形聲字 1) 鐘 2) 打擊，衝突 3) 相通 4) 興起 5) 無(空)

從龍得聲之形聲字 1) 相通 2) 興起

從中得聲之形聲字 1) 中空 2) 興起

這可說此類之意皆是由甬字而來的。以甬字爲語源字，經過聲符假借而使用的。這不是說所有的形聲字聲符都有表意的，但我們盡可能研究聲符之替換關係，查出聲符的語源意，提供形聲字研究具體資料，這對今後的文字學研究與漢字教育，會有不少貢獻。

주제어 : 甬, 語源意, 聲符假借, 聲符替換, 通用